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암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1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음 10월 23일) 제24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기업지원 성장사다리 성과 '눈에 띄네'

전북도, 선도사업 육성  
2014년부터 5년동안  
2626억 경제적 파급 효과  
매출 8.51% · 수출 7.09%  
고용 4.47% 증가해

장 확장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수출계약, 판로개척에 집중 투자한 결과 7.09%의 수출증가율을 달성했다.

고용증가율은 4.47%로, 구인·구직 활동 지원을 통해 신규로 108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졌고, 선도기업의 임금증가율 또한 9.88%로 매출성장이 고용안정 및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러한 선도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을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를 완성하는 원년의 해로 삼아, 선도기업의 동생기업 격인 도약기업을 강화하고 더불어 신규사업으로 튼튼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올해 신규 육성프로그램인 도약기업은 매출액 10억 이상 50억 미만의 기업 중 기술혁신성을 바탕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3년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벌써부터 내년도 선정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매출액 10억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도 튼튼기업을 지정해 기업별 중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한 후 경영, 품질혁신,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주기적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허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오늘의 성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내년을 기점으로 튼튼기업 육성프로그램까지 구축되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체계가 완성되어 더 많은 성과 창출이 기대되며, 이런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노란 이불 덮은 교정

차가운 날씨가 이어진 18일 전북대학교 교정이 떨어져 내린 은행나무 잎으로 가을의 운치를 느끼게 하고 있다.

## 내년도 전주시 예산안 '경제 살리기'에 방점

1조8979억원 규모 편성 시의회에 제출  
글로벌 관광도시 역량 강화 등에 집중 편성

전주시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탄소·드론 등 전주형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2020년도 시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주가 더욱 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일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문화관광 수용태세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 등 3대 목표, 8대 핵심사업에 중점을 두고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시의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8979억원 규모로, 이는 올해 본예산 1조6588억원과 비교하면 2391억원(14.4%)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액 확대 등 복지분야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해 올해 당초예산보다 2275억원 증가한 1조 6749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2113억원 대비 116억원(5.5%) 증가한 2229억원 규모다.

먼저 시는 활력이 넘치는 전주경제 대도약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경제 분야에 올해 당초예산보다 22% 증가한 5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예산은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31억원 △전주1산단 재생사업 15억원 △산단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원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충전소 및 수소자동차 구매 185억원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 기업 설립 10억원 △탄소산업 글로벌 연구네트 16억원 △드론 북극해해양수원원 원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화폐 도입 추진 1.5억원 △지역 경제 기여도 평가제 5000만원 △농민수당 28억원 등이다.

또한 시는 전주관광 외연확장 등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관련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보다 12% 증가한 1081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열린관광도시 전주조성 10억원 △한옥마을 관광기반(월캠센터) 정비 2.5억원 △마당창국 야외공연장 건립 15억원 △페스티벌(살(탈북예술공작) 문화재생 10억원 △한국의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14억원 △덕진공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5.7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90억원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30억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이외에도 시는 △야동수당 △바람부는 밤의 밤상 △청년실업 프로젝트 예산 증액 등 가장 인간적인 도시 구현을 위한 복지예산도 꼼꼼히 챙기고, △건널목 교통체계 개선 28억원 △속고개로 조성사업 20억원 등 도로·교통체계 개선과 걸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제출된 2020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까지 33일간 이어지는 전주시의회 제36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0일 치러진다.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18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을 내년 1월10일로 확정하는 등 본격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 민간 전북체육회장 선거, 내년 1월10일 실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투표)일자를 2020년 1월 10일로 정하고 투표 개시시간은 오후2시, 종료시간은 오후5시로 확정했다. 선거 장소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이다. 또 선거위는 선거 위반 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위해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도 의결했다. 회장 후보 등록 및 기탁금 납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이며 선거운동은 내년 1월1일부터 9일(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다. 선거운동은 회장 후보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어깨띠, 뿔,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명함, 전화, 정보통신망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또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발표가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이규정 선거연수원 초빙교수를 선관위 위원장으로 이상철 전 전북학생해양수원원 원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장은성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